

LEE SUNGU

DRAWING

MINIATURE

LINE ROOM

PHOTO

# ON LINE

<ON:LINE>전은 국립현대미술관이 추진중인 지역미술관 협력망사업 「신진 작가 지원」사업의 일환으로 개최되는 전시이다. 본 전시는 국립현대미술관이 신진 작가와 함께 전시, 교육 등의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지역 미술계 신진작가의 창작을 활성화하고자 기획되었다.

이번 전시에 선정된 이선구 작가는 청주에 연고를 두고 활동하는 작가로 일상의 사물을 새로운 눈으로 바라보는 작가이다. 주변에 있는 일상의 사소한 공간들을 작품으로 만들어 낸다. <ON:LINE>전에도 사소한 일상의 순간들을 선(線)이라는 매개체를 이용해 드로잉, 미니어처, Line Room 등의 키워드를 가지고 작업에 임한다.

작가가 선보이는 드로잉, 미니어처, Line Room 작품들은 모두 선(線)으로 연결되어 있다. 이번 작업의 주제이기도 한 '선'을 통해 공간을 나누고 이어 나가고 재구성하며 추상적 장소를 만들어 나간다.

'점'이나 '면'과는 다르게 '선'들의 표현은 '활동적인 움직임'과 '새로운 흐름'을 표현하는 기호로 담아내고 있다. 작가는 선의 이미지를 이용하여 점에서 점으로 향해 가는 선들을 시간적, 공간적으로 활용하며 과거에서 미래를 향해 나아가는 희망적인 메시지를 전달하고자 한다.

<ON:LINE>전은 작업의 가장 중요한 표현 수단이자 주제인 Line을 사용하는 작가의 다양한 텍스처와 독특한 형태의 작품 세계를 만나볼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다. 또한 선의 조화를 이루는 이번 전시는 시각적인 즐거움뿐만 아니라 직접 경험함으로써 잠재되었던 무한한 상상력을 불러일으킬 것이다. 예술과 상상력이 공존하는 <ON:LINE>전을 통해 개개인에게 내재된 다양한 선을 찾아보고 표현해보는 시간이 되길 바란다.

청주시립미술관

As a support project of the National Museum of Modern and Contemporary Art, <ON:LINE> is an exhibit intended to invigorate the artistic activities of up-and-coming artists in the world of local art by enabling public art galleries registered throughout the country to plan and carry out exhibits and training programs with rising artists.

Sun-gu Lee, one of the artists selected for this exhibit, is a Cheongju-based artist who sees everyday objects with a fresh perspective. He turns seemingly insignificant spaces around him into works of art. His work for the <ON:LINE> exhibit uses the medium of lines to create drawings, miniatures, and line rooms of moments from everyday life.

The artist's drawings, miniatures, and line rooms are all connected with lines. Using 'lines,' the subject of his latest work, Sun-gu Lee shares, continues, and restructures space as he creates abstract places.

Unlike 'dots' or 'planes,' 'lines' are used as symbols expressing 'active movement' and a 'new flow.' Using images of lines, the artist makes temporal and spatial use of lines leading from one point to another as a way of communicating a message of hope from the past to the futur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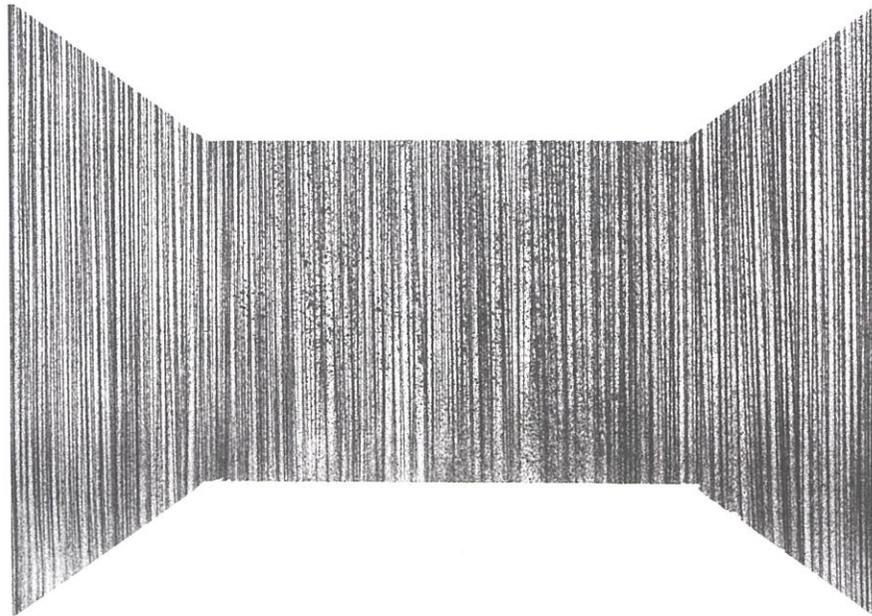
The <ON:LINE> exhibit presents an opportunity to encounter work with a variety of textures and unique forms from an artist who uses lines as the most important means of expression and subject of his work. Through its linear harmony, this exhibit will not only provide visual pleasure but also awaken the unlimited potential imagination within us through a direct experience with the work. We hope that the <ON:LINE> exhibit combining art and imagination will give each viewer a chance to discover and express the various lines with themselves.

선 위에  
Emerging from lines  
펼쳐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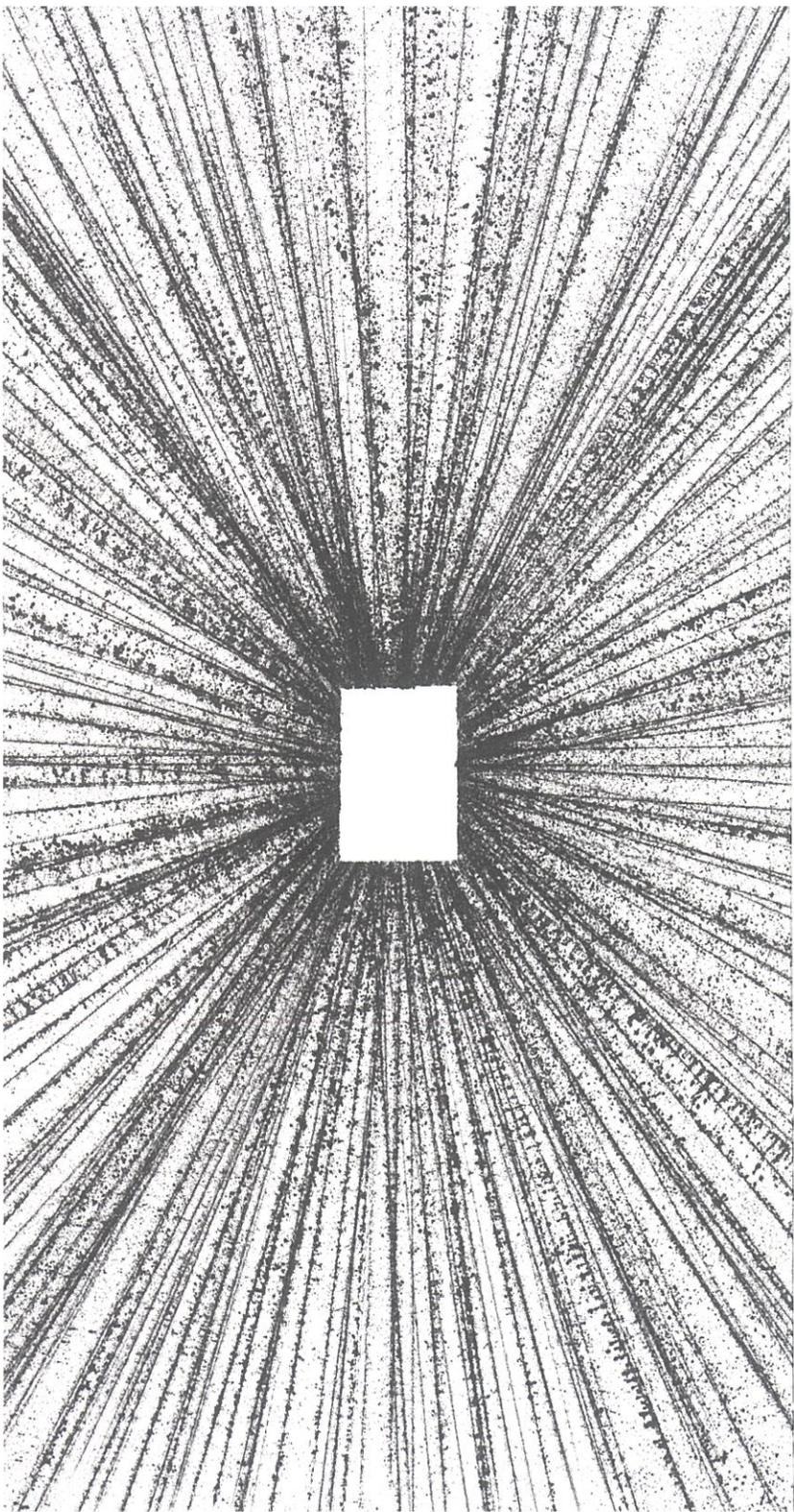
선연작가 지원망 이선구 Lee Sun Gu  
Exhibition :: Emerging from Lines - ON:LINE

'우리는 선을 넘을 수도 있고, 선을 끊을 수도 있다.  
 선은 무수히 많은 점으로 이루어져 있어서  
 점의 집합체일 수도 있고  
 선의 반복은 면의 연장선일 수도 있다.  
 우리는 이렇게 다양한 선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드로잉은 작가의 관심사인 '공간드로잉'이다. 하지만 공간이라고 불려질만한 객관적인 이미지도 없다. 일반적으로 공간에 대한 드로잉이라면 원근법을 기반으로 정면도, 평면도, 측면도 등을 이용하여 그려지는 드로잉이 대다수 일지 모르지만 나의 관점은 조금 다르다. 사각종이는 그려지는 종이로서의 역할이 아닌 사각종이 프레임 자체가 나에게 공간으로 다가온다. 그렇기 때문에 종이에 선을 그리고, 혹은 면을 입히거나 색을 이용해 꾸며지는 것은 내가 생각하는 공간에 대한 실험이다. 여기서 그치지 않고 찢거나 혹은 구김을 이용하기도 하며 종이를 입체물로 만들기도 함으로써 어디에도 제약받지 않는 드로잉이 되길 원하는 작업물이라고 할 수 있다.



Untitled  
 48×37(cm)  
 Ink / 2020



# DRAWING

선관객이 지평선 | 이선구 Lee Sun Gu

Exhibition :: Emerging From Lines, ON LINE